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

홍향연*·유태명**

진명여자중학교*·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Analysis of Influential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Self-Identity -

Hong, Hyang-Yeon*·Yoo, Tae-Myung**

*Jinmyung Girls' Middle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elf-identit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nam province. For this purpose following questions were formulated. First, Are th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self-identity by their background variables? Second, Are th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by their background variables? Third, How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and career maturity? Fourth, How are the influences of background variables and self-identity on students' career maturity? Self-identity and career maturity were measured over 551 9th grade students(317 male and 234 female students) in Changwon, Jinju, Geoje, Hadong, Sancheong, and Tongyeong areas. Frequency analysis, Cronbach's α ,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identity by mother's educational level, student's GPA, and economical background; 2.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by student's gender, 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student's GPA; 3. There was 3. There were high static correlation between self-identity and career maturity and its subordinate items; 4. Sex and self-identity and its sub-items of students' independence, self-receptiveness, firm future goals, goal-orientation, intimacy have relative influences on career maturity.

Key Words: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s), 자아정체감(Self-Identity),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가정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아를 실현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 선택은 삶의 과정에서 중대한 결정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영위하는데 장애요소가 많다. 많은 중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 특기 그리고 소질 등을 무시하고 교과 성적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거나, 부모나 교사 등 제 3자의 뜻에 따라 수동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김길정, 2003).

아동기까지는 자신에 대해 별로 심각한 의문이나 불만을 갖지 않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등 자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중학생들에게 ‘네가 잘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적성과 소질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훗날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 즉, 자신의 소질과 적성, 흥미, 그리고 특기 등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김길정, 2003). 서봉연(1995)은 청소년기에 와서 자아정체감 확립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는 이유가 청소년기가 진로에 대한 선택이 요청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아를 실현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서의 진로 선택은 삶의 과정에서 중대한 결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영위하는데 장애요소가 많다. 많은 중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 특기 그리고 소질 등을 무시하고 교과 성적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거나, 부모나 교사 등 제 3자의 뜻에 따라 수동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김길정, 2003).

2007년 2월 확정 고시된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a)에서는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들어 초등 실과 6학년에는 일과 진로 단원을, 중등 기술과정의 9학년에는 생애 설계와 진로탐색 단원을, 10학년에는 직업과 진로설계 단원을 구성하였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 과목을 개설하여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교육내용을 체계화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술·가정 교과와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단원이 한 단원이었던 것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두 단원으로 증가한 것이며, 실과(기술·가정)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즉, 각 교과에 진로교육 요소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과 및 단원과 관련된 직업에피소드, 일상생활과 연계된 일화, 성공적인 직업인의 사례, 진로 활동 자료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미래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는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평생 학습사회, 변화하는 사회에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진로개발 역량의 개발을 위해 진로 교육은 꼭 필요한 과제라는 의미에서 기술·가정 교과 시간에 진로교육을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b).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신념으로 인지적 판단과정을 통해 조성되는 자아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를 해야 한다.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에 자신의 특기, 적성, 흥미, 인성특성, 능력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일은 기술·가정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과 동시에 큰 보람을 얻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는 진로선택의 첫 관문에 있는 중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알고 직업 세계와 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확고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성숙된 진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관, 적성과 흥미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자신의 환경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일생동안 보람 있고 가치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진로지도가 어떠한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이제는 일의 세계를 포함하여 자아정체성과 삶의 의미 등의 인생 진로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정미란, 2005;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정미란(2005)은 자아정체감은 진로성숙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개인의 인지적, 혹은 정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직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함을 시사해주므로 적절한 자아정체감 형성 지도는 진로성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고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진로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현실에 충실하며 주어진 일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기르는 등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정과교육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기초로 기술·가정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고, 가정과 교사가 기술·가정 교과에서 진로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단원의 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배경변인과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및 관련변인 고찰

1. 자아정체감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변인 고찰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백문화(1992)의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거나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가족관계로 인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결과와 유사한 선행 연구로써 김형태(1989)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수준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희영(1986)도 가정의 응결력이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진다고 하였다. 가정의 소득 수준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강이, 2002)에서는 가정환경이 제공하는 보호요인 중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과 가정의 소득수준이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건강성을 대변하는 자아정체감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부모 변인의 영향력이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게 크게 미친다고 하였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백경임(2004)은 청소년기 친구관계와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청소년의 친구

관계의 하위영역은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하위영역 중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함을 주는 '정서적 안정'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이 높았으며, '친밀성' 역시 유의미하게 높았다. 친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믿는 '신뢰'가 높을수록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이 높았으며 '친밀성'과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비밀을 나누고 친구의 상태를 민감하게 아는 '친밀감'이 높을수록 '주체성', '자기수용성'에 대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친밀성'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높은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이나 인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변인에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경제수준에 따른 연구결과,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고교생의 자아개념이 높았고(서주형, 1995; 손원숙, 1994), 자아존중감과 경제수준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박성연 외, 2001). 국순화(2004)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별 자녀 자아정체감 차이검증에서 자아정체감 6개 요인 모두 중류층 집단이 가장 높고 상류층, 하류층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백문화(199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부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 모와의 응집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모와의 응집도 수준이 더 높았다. 국순화(2004)의 부모의 자녀 행동 통제유형과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6개 하위 요인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주체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미래확신성, 친밀성 순이며 여학생은 주체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자기수용성, 친밀성, 미래확신성 순으로 남녀 공히 주체성과 목표지향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친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남

성이 여성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순구·박정순, 1990)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구정화, 1994; 정재은·이순원, 1993; 심정은·고애란, 1997; 양원경, 1999)에서 일관적으로 성별간 차이가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세부적인 하위영역별로 볼 때, 자아정체감 가운데 '미래확신성', '주도성', '친밀성'은 성적에 따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목표지향성', '주체성', '자기수용성' 영역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백경임, 2004). 성적이 높을수록 '목표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적이 높으면 자기 인생의 목표 성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반응으로 '자기수용성', '주체성' 영역도 성적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이 증시되는 한국 청소년의 경우 당연한 결과이나, 하위영역에서 '미래확신성', '주도성', '친밀성'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학업성적이 하위권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백경임, 2004).

2. 진로성숙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변인 고찰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이선(2005)의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미순(1999), 구혜선(2002), 오은경(2003) 등의 기존연구와도 일치한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선택 의식구조에 관한 최송희(2006)의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 성숙은 성별, 가정환경, 학업성적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의해 학생들의 진로성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학교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정체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송유정, 2006)에서는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

의 각 하위요인별 차이검증에서는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좀 더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려는 성향,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부모에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와의 안정된 관계와 의사소통, 부모의 지지로 진로를 결정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진로선택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타협하는 정도와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정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관련변인에 따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선 부모의 학력에 대한 연구에서 권영조(1990)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진로성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하며 그 이유를 보상 및 기대심리로 해석하였다. 김이선(2005)의 부모의 학력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도 부, 모 모두 준비성 차원에서만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자녀가 중졸이하 저학력자 자녀보다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여타 분야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서우석(1994), 구혜선(2002), 오은경(2003)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김이선(2005)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 전체와 5개의 진로성숙도 변인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하'인 집단보다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이는 Holland(1981), 구혜선(2002), 오은경(2003)의 기존연구와도 일치한다. 반면에 윤희준·이재신(1986)의 연구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좀 더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Achebe, 1982; 권기옥, 1997 재인용)도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Herr & Enderlin, 1976; 김영숙, 1993 재인용).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인 발달 면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서적, 직업적인 면에서도 발달유형이나 발달수준에 차이를 나타내므로, 남녀 간의 진로성숙도에는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진로성숙에

대한 종단적 연구자료를 분석한 Rathburn(1973)은 중학교 1학년까지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으나 중학교 2학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진로성숙 수준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윤희준과 이재신(198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중·고등학생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진로성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선(200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숙수준이 조금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는 결정성과 확신성 차원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 있고, 준비성 차원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립성 차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학생 시기의 경우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남학생보다 높다는 연구들(김현옥, 1989)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들(서우석, 1994; 구혜선, 2002; 오은경, 2003)에서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개인의 진로성숙도는 직업선택성이나 직업훈련 또는 성격, 흥미, 능력 등에서의 개인차에서 오는 것이지,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로성숙도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권영조, 1990).

학업성적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불일치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학업성적과 진로성숙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지만,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Phillips와 Strohmmer(1978)는 학업성취도 한 변인만으로는 진로성숙 수준을 의의있는 수준에서 예언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고, Nuckols(1974)는 중학생의 직업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적 경험 등을 들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재인용). 즉, 학업성적이 높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이 더 높은 수준의 직업의식을 보여 주었으며, 직업세계에서 일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직업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이 하위직업보다 상위직업의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반면,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은 상위직업보다 하위직업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검사의 하위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김이선(2005)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진로성숙도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구혜선(2002), 오은경(2003)의 학업성취 수준이 상, 중, 하 순으로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기존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본 진로성숙도 조사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늘고 직업정보에 많이 접하게 되어 문제해결 능력이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현옥, 1989). 김원중(1984)은 연령보다는 학년이 진로성숙과 높은 상관을 가지는데, 이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동질적인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채기(1990)의 가정 환경 특성과 진로의식 성숙과의 학교 수준별 상관 관계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탐색기에 접어든 중학생이 가장 진로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해주며, 고등학생은 이미 계열선택에 의해 진로선택 및 준비가 된 상태라고 그 낮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3.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선행연구들이 밝힌 진로성숙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은 매우 다양하나, 이 변인들 중에서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김연미(1997)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인 중 결정성, 직업세계이해가 각각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인 중 주체성, 정체감 유예, 목표지향성이 각각 진로성숙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미옥(1993)은 중학교 2, 3학년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진로성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은진(2001)은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의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신미자(2002)의 연구에서도 진로성숙도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에 대한 설명변량은 37.5%로 매우 높으며, 자아정체감 요인

들 중에서 진로성숙도를 의의 있게 설명해주는 요인은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정체감유예 요인이라고 밝히고,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이고 잘 확립되어 있으면 진로성숙도도 잘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미결정과 자아정체감, 인생목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양은정, 2000)에서는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인생목적이 낮고,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을수록 인생목적 수준이 높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길정(2003)은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자아정체감은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변인에 의의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자아정체감의 미래확신성은 진로성숙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영준(2006)은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들은 대부분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미래확신성, 주체성, 목표지향성의 영역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 정미란(2005)은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의 여러 요인들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도시 진주와 창원 시내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과 거제와 하동, 산청, 총무의 읍·면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의 남·녀 학생을 유의표집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중학교 3학년으로 한 것은 중학교 3학년 기술·가정교과에 진로교육 단원이 편제되어 있고, 중학교 졸업 후 진학 방향이 갈라지는 시점에서 중학교 3학년 초기가 진로 선택의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로 보고 결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각각 57.5%, 42.5%이었고,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9.2%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졸이 32.8%로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도 아버지의 학력과 마찬가지로 고졸 65.4%과 대졸 22.0% 순으로 많았다. 자신이 응답한 학업성적은 중 그룹 58.5%, 상그룹 27.2%, 하그룹 14.3% 순으로 많았다. 경제수준은 대부분인 82.2%가 중에 속하였다. 지역은 읍·면이 55.5%, 도시가 44.5%로, 진로교육을 받은 학생은 41.7%와 받지 않은 학생이 58.3%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조사를 하기 전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 도구는 중학교 3학년 한 학급 45명을 대상으로 2007년 3월에 예비 조사를 거쳐 중학생 수준에 맞도록 용어와 표현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N	%
성별	남자	317	57.53
	여자	234	42.47
아버지학력	초졸	13	2.39
	중졸	53	9.76
	고졸	267	49.17
	대졸	178	32.78
	대학원졸	32	5.89
	무응답	8	-
어머니학력	초졸	14	2.59
	중졸	34	6.28
	고졸	354	65.43
	대졸	119	22.00
	대학원졸	20	3.70
	무응답	10	-
학업성적	상상	60	11.03
	상하	88	16.18
	중상	167	30.70
	중하	151	27.76
	하상	49	9.01
	하하	29	5.33
무응답	7	-	
경제수준	상상	14	2.58
	상하	44	8.10
	중상	296	54.51
	중하	150	27.62
	하상	28	5.16
	하하	11	2.03
무응답	8	-	
지역	읍·면	306	55.54
	도시	245	44.46
진로교육여부	예	230	41.74
	아니오	321	58.26
계		551	100.00

가. 자아정체감

본 연구에서는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 즉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그리고 친밀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의 각 문항이 8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처리하였다. 자아정체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나. 진로성숙도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 검사(Creer Maturity Inventory)를 김현옥(1989)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Crites가 개발한 CMI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검사에서는 태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태도척도는 진로선택 시 개인이 갖는 성향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별로 결정성 9문항, 관여성 10문항, 독립성 10문항, 성향 10문항, 타협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도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처리하였다. 진로성숙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2007년 4월 11일에서 4월 20일까지 경상남도 읍·면 소재 4개 중학교와 도시 소재 5개 중학교의 중학생 551명(남학생 317명, 여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각 학급 담임 교사의 사전 협조를 얻어 조사의

목적을 조사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실시 요령을 이해시킨 후 조사에 임하게 하였다. 총 551명의 응답자 중 무성의한 응답, 중복 응답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47부를 제외하고 504부를 대상으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자료분석

한글 SPSS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처리를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가 독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Scheffé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배경변인과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자아정체감 점수는 5점 만점에 3.24로 보통 정도이었다. 자아정체감 하위항목들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기수용성(M=3.50)이었으며,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목표지향성(M=3.01)으로 모든 하위 항목의 평균이 3.0 이상이었다.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자아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은 어머니 학력, 학업성적, 경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에서는 대졸이상(M=3.35)이 중졸이하(M=3.06)보다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522, p<.01). 학업성적의 경우 상(M=3.43)이 중하(M=3.09), 하(M=3.11)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F=11.810, p<.01) 이는 백경임(2004)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 성적이 높으면 자기 인생의 목표 성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수준에서는 중상(M=3.30)과 상(M=3.31)이 하(M=2.97)에 비해 전체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415, p<.01). 이는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다고 보고한 서주형(1995), 손원숙(1994)의 연구나 자아존중감과 경제수준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박석연 외(2001), 국순화(2004)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 아버지학력, 주거형태, 지역, 진로교육 여

<표 2>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 차이검증

구분	자아정체감														
	중저성		경제수준성		미래파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자	3.39	.65	3.50	.72	3.22	.80	3.02	.65	3.21	.63	3.16	.75	3.25	.54
	여자	3.23	.63	3.50	.66	3.23	.87	3.00	.67	3.15	.70	3.23	.72	3.22	.55
	t	2.987**		.044		-.059		.322		1.113		-1.143		.631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24 ^b	.64	3.40	.72	3.03	.85	2.96	.60	3.15	.60	3.11	.78	3.15	.51
	고졸	3.27 ^{ab}	.62	3.46	.67	3.22	.82	3.01	.66	3.18	.65	3.22	.70	3.23	.52
	대졸이상	3.42 ^a	.67	3.59	.71	3.29	.83	3.03	.68	3.21	.69	3.19	.76	3.29	.58
	F	4.096*		2.673		2.476		.297		.280		.608		1.862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10 ^b	.58	3.32 ^a	.60	2.94 ^b	.77	2.91	.58	3.07	.57	3.04	.60	3.06 ^b	.47
	고졸	3.29 ^{ab}	.65	3.47 ^{ab}	.72	3.19 ^{ab}	.84	2.99	.68	3.18	.69	3.19	.74	3.22 ^{ab}	.56
	대졸이상	3.48 ^b	.62	3.64 ^b	.63	3.37 ^a	.78	3.11	.63	3.24	.61	3.23	.75	3.35 ^a	.49
	F	7.621**		5.077**		5.396**		2.235		1.292		1.285		5.522**	
학업 성적	하	3.10 ^c	.68	3.21 ^c	.73	3.18 ^{ab}	.89	2.90 ^b	.65	3.10 ^b	.73	3.19	.87	3.11 ^b	.57
	중하	3.17 ^{bc}	.62	3.34 ^{bc}	.64	2.99 ^b	.79	2.87 ^b	.61	3.07 ^b	.62	3.12	.66	3.09 ^b	.50
	중상	3.36 ^{ab}	.58	3.53 ^{ab}	.68	3.28 ^a	.80	3.03 ^{ab}	.67	3.14 ^b	.67	3.17	.75	3.25 ^{ab}	.52
	상	3.55 ^a	.66	3.76 ^a	.66	3.42 ^a	.82	3.19 ^a	.67	3.39 ^a	.60	3.29	.74	3.43 ^a	.54
	F	12.993**		15.267**		7.354**		6.809**		7.058**		1.341		11.810**	
경제 수준	하	3.06 ^b	.72	3.07 ^b	.74	3.09	.91	2.74 ^b	.66	2.94 ^b	.53	2.91 ^b	.77	2.97 ^b	.51
	중하	3.22 ^{ab}	.60	3.41 ^a	.70	3.14	.80	2.93 ^{ab}	.63	3.10 ^{ab}	.66	3.13 ^{ab}	.74	3.16 ^{ab}	.53
	중상	3.39 ^a	.61	3.59 ^a	.65	3.27	.81	3.08 ^a	.66	3.26 ^a	.66	3.25 ^a	.71	3.30 ^a	.53
	상	3.46 ^a	.78	3.59 ^a	.73	3.34	.91	3.06 ^a	.66	3.19 ^{ab}	.69	3.25 ^a	.83	3.31 ^a	.56
	F	5.311**		8.041**		1.459		4.191**		3.833**		3.031*		6.415**	
지역	읍면	3.34	.65	3.50	.68	3.21	.83	3.01	.65	3.21	.64	3.15	.76	3.24	.53
	도시	3.30	.64	3.49	.72	3.24	.84	3.02	.67	3.16	.68	3.24	.72	3.24	.56
	t	.602		.171		-.348		-.200		.927		-1.400		-.097	
진로교육 여부	예	3.29	.65	3.51	.68	3.25	.83	2.99	.69	3.17	.68	3.21	.72	3.24	.54
	아니오	3.34	.64	3.49	.71	3.21	.83	3.03	.64	3.20	.65	3.18	.76	3.24	.55
	t	-.838		.302		.564		-.756		-.389		.518		-.085	
전체	3.32	.65	3.50	.70	3.23	.83	3.01	.66	3.19	.66	3.19	.74	3.24	.54	

*p<.05, **p<.01, a>b>c: Scheffé 검증.

부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김길정(2003)의 연구와 일치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손보현(1997)의 연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의 있게 높다고 보고한 이원강(1993)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진로성숙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27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진로성숙도의 하위항목들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독립성(M=3.57)이었으며,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결정성(M=2.81)이었다.

배경변인에 따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검정

		진로 성숙도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자	2.80	.51	3.50	.51	3.59	.58	3.15	.68	2.83	.70	3.23	.42
	여자	2.83	.56	3.67	.48	3.60	.56	3.34	.69	2.82	.70	3.32	.44
	t	-.590		-4.068**		-.050		-3.080**		.175		-2.422**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2.79	.45	3.51	.48	3.53	.64	3.06	.65	2.81	.78	3.19	.40
	고졸	2.85	.54	3.57	.49	3.57	.56	3.26	.67	2.80	.66	3.27	.41
	대졸이상	2.77	.55	3.59	.53	3.64	.56	3.25	.73	2.86	.72	3.28	.46
	F	1.618		.593		1.490		2.330		.538		1.187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2.80	.44	3.45	.46	3.41 ^b	.56	3.07	.58	2.70	.70	3.15 ^b	.37
	고졸	2.82	.55	3.56	.49	3.59 ^{ab}	.57	3.21	.69	2.81	.70	3.26 ^{ab}	.43
	대졸이상	2.81	.54	3.62	.55	3.66 ^a	.56	3.32	.72	2.88	.70	3.32 ^a	.45
	F	.013		2.064		3.375*		2.662		1.318		3.030*	
학업성적	하	2.84	.51	3.41 ^b	.54	3.55	.61	3.19 ^{ab}	.67	2.86	.69	3.22 ^b	.43
	중하	2.77	.54	3.51 ^b	.44	3.52	.55	3.10 ^b	.65	2.77	.65	3.19 ^b	.40
	중상	2.79	.52	3.57 ^{ab}	.47	3.58	.56	3.22 ^{ab}	.69	2.78	.71	3.26 ^{ab}	.42
	상	2.87	.56	3.72 ^a	.55	3.70	.55	3.40 ^a	.73	2.91	.74	3.39 ^a	.45
	F	.984		8.079**		2.916		4.963**		1.322		5.949**	
경제수준	하	2.76	.56	3.37 ^b	.44	3.62	.56	2.93 ^b	.63	2.71	.65	3.14	.37
	중하	2.82	.50	3.53 ^{ab}	.49	3.55	.56	3.19 ^{ab}	.66	2.79	.69	3.23	.41
	중상	2.81	.53	3.64 ^a	.50	3.59	.58	3.29 ^a	.70	2.85	.69	3.30	.43
	상	2.83	.64	3.49 ^{ab}	.56	3.72	.55	3.29 ^a	.75	2.86	.82	3.30	.47
	F	.134		4.984**		1.263		3.410*		.618		2.146	
지역	시골	2.83	.54	3.54	.50	3.59	.57	3.19	.68	2.83	.69	3.26	.42
	도시	2.80	.53	3.61	.50	3.60	.57	3.28	.70	2.82	.71	3.29	.44
	t	.760		-1.626		-.147		-1.560		.091		-.867	
진로교육 여부	예	2.79	.56	3.61	.50	3.62	.56	3.33	.67	2.83	.70	3.30	.43
	아니오	2.83	.51	3.54	.50	3.57	.58	3.16	.70	2.82	.70	3.24	.43
	t	-.913		1.499		1.056		2.882**		.294		1.648	
전 체		2.81	.53	3.57	.50	3.59	.57	3.23	.69	2.82	.70	3.27	.43

*p<.05, **p<.01, a>b>c: Scheffé 검증.

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성별, 어머니학력, 학업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학생(M=3.32)이 남학생(M=3.23)보다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22, p<.01$). 이는 김옥숙(2001), 손보현(1997)의 연구와 일치하나,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정미란(2004), 김길정(2003), 신미자(2002)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어머니 학력에서는 대졸이상이 진로성숙도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3.030, p<.05$), 학업성적에서는 상(M=3.39)인 집단이 중하(M=3.19), 하(M=3.22)인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949, p<.01$). 진로교육여부에 따른 전체 진로성숙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로교육여부의 하위항목인 성향에서는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M=3.33)이 없는 집단(M=3.16)에 비하여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82, p<.01$).

3.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의 전체 및 하위항목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

시되어 있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자아정체감과 전체 진로성숙도 간에는 높은 정(+)적상관($r=.70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항목 간에도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영준(2006), 정미란(2004), 김길정(2003), 신미자(2002), 김은진(2001), 양은정(2000), 김연미(1997), 남동미(1993), 김미옥(199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4. 배경변인과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과 자아정체감이었다. 전체 진로성숙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자아정체감($\beta=.71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성별($\beta=.116$)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을수록 성별이 여자일 때 전체 진로성숙도 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282.243^{**}, R^2=.516$).

<표 4>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아 정체감	(1)주체성	1											
	(2)자기수용성	.760**	1										
	(3)미래확신성	.678**	.538**	1									
	(4)목표지향성	.599**	.625**	.490**	1								
	(5)주도성	.495**	.568**	.357**	.617**	1							
	(6)친밀성	.403**	.428**	.277**	.390**	.557**	1						
	(7)전체	.846**	.839**	.738**	.793**	.765**	.661**	1					
진로 성숙도	(8)결정성	.398**	.339**	.639**	.418**	.301**	.221**	.510**	1				
	(9)관여성	.326**	.405**	.432**	.267**	.295**	.190**	.417**	.353**	1			
	(10)독립성	.273**	.261**	.363**	.187**	.314**	.214**	.352**	.178**	.392**	1		
	(11)성향	.545**	.529**	.711**	.520**	.494**	.436**	.706**	.629**	.546**	.374**	1	
	(12)타협성	.382**	.427**	.386**	.435**	.404**	.363**	.518**	.457**	.258**	.147**	.520**	1
	(13)전체	.541**	.544**	.723**	.503**	.504**	.395**	.700**	.717**	.731**	.624**	.884**	.583**

**p<.01

〈표 5〉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분석

	진로성숙도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 (0:남, 1:여)	-	-	.182	.178**	-	-	.205	.146**	-	-	.101	.116**
어머니학력 (1:중졸이하, 3=대졸이상)	-	-	-	-	-	-	-	-	-	-	-	-
학업성적 (1=하, 3=상)	-.048	-.090*	.065	.130**	-	-	-	-	-.052	-.075*	-	-
자아정체감	.542	.549**	.362	.390**	.370	.356**	.921	.721**	.693	.539**	.563	.712**
F	105.933**		49.869**		77.096**		306.764**		101.582**		282.243**	
R ²	.286		.220		.127		.537		.277		.516	

*p<.05, **p<.01

진로성숙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인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자아정체감의 하위항목들이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앞의 상관분석결과 자아정체감의 하위 항목들 간 높은 정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들인 자아정체감 하위항목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친밀성이었다. 전체 진로성숙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미래확신성(β=.644)이었

으며, 그 다음으로 목표지향성(β=.206), 주체성(β=-.159), 자기수용성(β=.158), 친밀성(β=.098) 순이었다. 즉, 미래확신성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지향성 점수가 높을수록, 주체성 점수가 낮을수록, 자기수용성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성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168.592**, R²=.609). 자아정체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한영준(2006), 정미란(2005), 김길경(200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선행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들은 대부분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의 영향력이 컸다.

〈표 6〉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 하위항목의 영향력 분석

	진로성숙도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주체성	-.132	-.159**	-.155	-.199**	-	-	-	-	-	-	-.105	-.159**
자기수용성	-	-	.255	.353**	-	-	-	-	.138	.137**	.097	.158**
미래확신성	.419	.653**	.228	.377**	.230	.338**	.477	.573**	.139	.165**	.332	.644**
목표지향성	.155	.191**	-	-	-.138	-.160**	.085	.080*	.207	.195**	.134	.206**
주도성	-	-	-	-	.251	.292**	.155	.148**	-	-	-	-
친밀성	-	-	-	-	-	-	.153	.163**	.172	.182*	.057	.098*
F	138.798**		57.648**		41.013**		198.423**		51.125**		168.592**	
R ²	.434		.241		.184		.594		.274		.609	

*p<.05, **p<.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학력,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전체 자아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 아버지학력, 주거형태, 지역, 진로교육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 어머니학력, 학업성적에 따라 전체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교육여부에 따른 전체 진로성숙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위 항목인 성향에서는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전체 및 하위항목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자아정체감과 전체 진로성숙도 간에는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 항목 간에도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진로성숙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자아정체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항목들이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친밀성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에 모두 차이를 보인 변인은 어머니의 학력과 학업성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교육에 더 관여하고 있어 자녀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상호작용이 어머니와 더 긴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교육을 통해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진로교육여부에 따른 전체 진로성숙도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항목인 성향에서는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그 동안 이루어진 진로교육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가 높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로 지도 프로그램 개발·적용은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게 하며,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중·고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생애단계에 따른 진로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되 종래의 직업의 종류와 선택에 국한되어 오던 기술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교육의 실천교과로서의 본질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셋째,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가정과 교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은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로와의 함양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교육활동으로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과 자아정체감이었다. 이를 고려하여 남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지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성평등적이면서 동시에 성에 민감한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가정과 교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도록 기술·가정 교과 관련 단원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탐색이 가능하도록 가정과 교사들이 앞장서서 도우도록 해야 한다. 기술·가정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종합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 중요한 교과로서, 새로운 직업의 변화를 살피고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 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구체적인 진로탐색 능력을 가정과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은 충분한 진로 탐색 단계를 경험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고 개인의 직업적 흥미와 적성, 특기 등의 탐색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게 되며, 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여 자신의 미래 생활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 능력, 적성, 흥미, 신체적 특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단지 청소년 발달 단원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기타 의식주, 가족, 자원 및 소비 단원에서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은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로의식 함양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이를 위한 교육활동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이 연구를 통하여 교육 현장 전반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육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높이고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상에 학습내용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내용, 타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내용, 교과 외의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가정과교육의 영역별 혹은 범교과적인 통합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학년급간 지속성 및 계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내용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활동과 교과 외의 활동들이 어떻게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융통성 있게 지도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9학년에 생애설계 차원에서의 진로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과 교육자료 개발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교육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교사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자아정체감 강화 프로그램 및 생애설계 차원에서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중학교 교사들이 진로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나아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운영 여건 확충 등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a). 초·중등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별책 1].
- 교육인적자원부(2007b). 2007 개정 교육과정 개요. 교육과정 자료 391.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해설(III): 수학, 과학, 기술·가정.
- 구정화(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 95-113.
- 구혜선(200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순화(2004). 부모의 자녀 행동 통제유형과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귀옥(1997). 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상담학회지, 2(1), 129-160.
- 권영조(1990).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의 진로의식 성숙도와 사회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길정(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06).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1993).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구·박정순(1990).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한국이류학회지, 14(4), 63-71.

- 김옥숙(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미(1998).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1993). 국민학교 고학년 학생의 진로성숙에 관한 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중(1983). 진로의식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2006).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 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희영(1986).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도현심(2001).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과 청소년의 적용. '한민적의 공동체 시각에서 본 연변 조선족 현실' 심포지움. 37-51.
- 박아청(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일반, 15(1), 140-162.
- 백경임(2004). 청소년기 친구관계와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문화(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동거와 비동거 가족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6.
- 서봉연(1995). 자아정체감의 정립과정.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06-109.
- 서우석(1994).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주형(1995). 고교생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보현(1997).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원숙(1994). 주관적 연령지각과 자아개념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유정(2006).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정체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미자(2002). 자아정체감과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정은·고애란(1997). 청소년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 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 양원경(1999). 포래 수용성 및 포래 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은정(2000). 성격적 치유 꾸러미가 상한자의 회복, 양육,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은경(2003). 사회적 지지와 의사결정 유형,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강이(2002).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65-76.
- 정미란(200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삶의 의미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이순원(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48-458.
- 정채기(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송희(2006). 실업계 고교생의 진로선택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1992). 진로성숙도 검사 요강. 한국적성연구소.
- 한영준(2006). 고등학교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rites, J.O.(1978).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lifornia: CTB/McGraw-Hill.
- Crites, J.O.(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Holland, J.L(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 NJ: Englewood Cliffs.

Holland, M.(1981). Relationships between vocational development and self-concept in sixth grad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228-236.

Marcia, J.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Munley, P.H.(1977). Erikson's Theory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 261-269.

Tolbert, E.L.(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Zunker, Vernon G.(1998).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Monterey, California: Cole Publishing Co.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남지역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배경변인과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주와 창원 시내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과 거제와 하동, 산청, 충무의 읍·면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의 남·여 학생 551명(남학생 317명, 여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를 검사한 후 빈도분석, Cronbach's α ,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의 통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학력, 학업성적, 경제수준의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 어머니학력, 학업성적의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전체 자아정체감과 전체 진로성숙도 간에는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성숙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자아정체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항목들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친밀성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교육현장의 기술가정시간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의 향상과 더불어 진로성숙도도 향상될 수 있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4월 30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5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7월 15일